

져 버리면 가뿐하다. 다리를 트는 것은 흔히 한동안 괴롭고 한동안 홀가분해졌다가 다시 괴로운데 모두 이러하다. 당신이 이 한 덩이 업을 없애버렸다면 이번에 다리를 트는 시간이 길 수 있다. 그러나 업이 막 나올 때에 당신이 다리를 바로 올려놓으면 아마 아주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참을 수 있을 때에는 가부좌한 시간이 마찬가지로 원래 얼마를 틀 었다면 여전히 그만큼 틀 수 있는데 다만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 뿐이다.

제자: 술을 마시면 연공인이 연마해 낸 생명체가 몸에서 떠나게 됩니까?

사부: 그렇다. 담배를 피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당신 그것이 그을리기만 하면 그는 당신의 몸에 있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당신의 몸에는 공이 없다. 우리가 말했지만, 만약 진정하게 수련하려고 한다면 이까짓 것 집착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겠는가? 수련은 아이들 장난으로 간주할 수 없는바, 이것은 대단히 엄숙한 문제이다. 우리는 인류가 어떤 큰 번거로움에 부딪혀 명을 보존하기 위해 수련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으며 또한 이것을 일종의 동력으로 삼아 당신의 수련을 추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느바, 진정한 수련은 당신 개인의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 法輪大法義解

## 파룬파파의해

李洪志

게 안마를 해주게 되므로, 우리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만약 의사라면 그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속인 중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제자: 사람의 副意識(푸이스)는 사람의 일생을 동반하는데 그는 어떤 작용을 합니까?

사부: 사람의 副意識(푸이스)가 하는 역할은 주로 사람에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 사람의 主意識(주이스)가 대단히 강할 때에는 그도 막아내지 못한다.

제자: 저는 가부좌할 때 어떤 때는 오랜 시간 다리를 틀 수 있으나 어떤 때는 단지 십 분밖에 틀지 못하는데 무슨 원인입니까?

사부: 그것은 정상적이다. 다리를 트는 것 역시 소업(消業)이므로 심적인 고통(苦其心志)과 신체적인 고생(勞其筋骨)을 겪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신체적인 고생(勞其筋骨)을 겪는가? 그것은 바로 연공 시간을 좀 길게 하고 다리를 트는 것이 좀 괴로워야 하는데 주로 이 두 방면에서 체현된다. 신체적인 고생 자체가 바로 소업과 제고의 과정이다. 다리를 트는 것이 소업이 아닌가? 그러나 이 업은 단번에 모두 다리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덩이 한 덩이로 된 것으로, 한 덩이가 나오면 아파서 못 견딜 정도이지만 없어

## 머리말

사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이번 학습반에 바로 이런 사람이 있으며 어느 학습반에서나 모두 있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신체를 청리(淸理)하여 병을 제거할 때면 모두 아주 강렬한 반응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공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병을 천천히 제거하기 때문에 반응이 그리 강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괜찮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그래도 정상적일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며, 때로는 이 공을 연마하고 때로는 저 공을 연마하며,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心性(썩썩)도 높지 않다면, 아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당분간 휴식하도록 권할 수 있으며 그에게 어떤 공을 연마한 적이 있는지, 또는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를 물어보도록 하라. 그 상태가 지나간 다음 다시 연마하도록 해 보라. 왜냐하면, 지금 와서 연공하는 사람이 모두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라고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자: 혈위(穴位) 안마를 해도 됩니까?

사부: 우리 무슨 혈위 안마를 하지 않는다. 世間法(쓰젠파) 수련에서 다른 사람에게 병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이런 것이 없다. 진짜로 수련하는 사람은 병이 없다. 나의 법신이 모두 제거해 버렸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면 모두 해주는 것으로 무슨 혈위 안마의 일이 없다. 수련자의 업력을 안마로 제거할 수 있는가? 당신이 공을 갖고 다른 사람에

法輪大法(파룬따파)의 보도(輔導)사업을 더욱 잘하기 위해, 연구회와 각지 보도소의 요구에 따라 내가 보도원회의에서 한 설법과 해법(解法)을, 나의 심사를 거쳐, 지금 정식으로 출판한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사람 중에는 기타 성(省), 시(市)의 소수 보도원도 있었다. 내가 설법하고 해법한 후, 일부 사람이 녹음에 근거하여 문자로 정리하였으며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그것을 서로 베끼고 복사하였다. 나는 설법하고 해법할 때 모두 특정한 환경, 특정한 조건과 구체적인 대상을 상대로 진행한다. 그러므로 이런 요소를 떠나 전해지는 베끼린 원고는, 내가 말한 대법을 다른 뜻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오해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법을 전파하는 데 불리하다.

『法輪大法義解(파룬따파의해)』는 보도원들의 내부 독서용으로 출판 발행한다. 매 보도원은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전파할 때, 자신에 대해 책임지고, 수련생에 대해 책임지며, 사회에 대해 책임지고, 대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선전과 문제해답을 할 때는, 받아들이는 이의 대법에 대한 이해 정

도와 감당 능력에 따라 알맞게 대법을 홍보해야 한다.

리홍쓰(李洪志)

사부: 구결을 외우는 것은 좋은 점이 있는 것으로 천여 번 외운다 하여 法輪(파륜)이 변형될 수 없다. 물론 당신이 개공개오(開功開悟)한 후에 당신은 알게 되는데, 대단히 높은 층차에 이르면 당신은 구결을 외울 수 없다. 당신이 외우는 진동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신이 늘 외운다면 뒹뒹거리 남을 진동하여 괴롭히기 때문이다.

제자: 왜 어떤 수련생은 연공(煉功) 후에 머리가 갈라지는 듯합니까?

사부: ‘갈라졌다(裂開)’면 맞다. 우리는 정수리를 열어줌을 말하는데 ‘갈라졌다’면 맞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갈라질 때 ‘팍’ 하는데 그리 큰 감각이 없다. 어떤 사람은 갈라질 때 천천히 열리는데, 아주 괴롭다. 하지만 일이란 두 방면에서 봐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집착심을 내려놓지 못해 좋지 못한 것을 초래하고도 버리기 싫어한다. 그러므로 연공(煉功)할 때 법이 그 좋지 못한 것을 청리(清理)하려 하기에 그 좋지 못한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머리가 아프게 하고 당신이 정법을 수련하지 못하게 하는데, 또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관건문제는 당신이 수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으로 가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을 버릴 수 있는지에 있다.

제자: 어떤 사람은 연공(煉功)할 때 머리에 식은땀이 나고 쇼크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玄)’이 아니라 마땅히 돌 선(旋)자여야 한다. 우리의 법은 본래 원용(圓容)한 법이기 때문에 그는 회전(旋轉)하고 있는 것이며法輪(파륜)은 바로 바퀴와도 같은 표현형식이다. 선법지극(旋法至極)이란 틀리지 않다. 가히 대단히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극점(極點)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바로 이 뜻이다. 선법지허(旋法至虛), 이것은 우리 수련과정 중의 하나의 용어이며 또한 우리 이 공(功) 중의 주결(咒訣)이기도 하다.

여러분 아다시피 그 주결이란 그것은 각자(覺者), 또는 이 한 법문 중에서 수련된 각자, 또는 이 한 법문 중에서 성취가 있는 각자를 불러와서 당신에게 호법(護法)해 주며 당신을 가지(加持)해 주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종교 중의 주문 역시 이 작용을 한다. 결(訣)을 외우면 공이 자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것은 단지 이런 작용을 할 뿐이다. 지허(至虛)란 역시 아주 높은 층차를 가리킨 것이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경지를 허계(虛界)라고 하는데 바로 이 뜻이잖은가. 도교 중에 늘 이 용어가 나타나는데 태극이 아직 형성되기 전을 태허(太虛)라고 한다. 바로 그것이 아주 높고 아주 원시적이라는 말이다.

제자: 가부좌할 때에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구결을 반복적으로 묵념(默念)하며 천여 번 외우는데法輪(파륜)이 변형될 수 있습니까?

## 차 례

창춘(長春)法輪大法(파륜따파) 보도원을 위한 설법 .....	1
베이징(北京)法輪大法(파륜따파) 보도원회의에서 하신 건의 .....	101
전국 일부 보도소 소장들을 위한 광저우(廣州) 설법 .....	129
베이징(北京)法輪大法(파륜따파) 보도원회의에서 말씀하신 정법(正法)에 관한 의견 .....	166
재판(再版)을 내면서 .....	192

있고 그는 이 대법이 너무나도 좋다고 여겨 쓰게 되었다. 두 번째로 강의를 들을 때 그는 글을 쓰려는 생각을 품고 들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로지 아주 조용하게 들어야만 비로소 깨달을(領會)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한 채 우리 여러분이 보게 된 이 문예작품 형식으로 써냈다. 어떤 일은 예술적으로 각색한 것으로서 그 큰 구렁이에 대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음보살이 나의 사부라고 하는데 그 역시 존재하지 않는 예술적 각색이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좋다. 우리 이 법을 널리 선양(宣揚)하고자 한 것으로 동기는 좋은 것이다. 이 한 점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그의 이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작품을 써내게 되었다. 문예작품인 만큼 그는 본래 문예란 이 각도에서 쓴 것이다. 왜냐하면, 소설은 가히 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신축성이 아주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 학습의 지도적인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중 오계(五戒), 십악십선(十惡十善)에 대한 것은 모두 원시불교 중의 것이다. 우리는 계(戒)를 말하지 않으며 수련하고 수련하지 않고의 표준을 우리는 법 중에서 모두 여러분에게 말하였다.

제자: ‘현법지극(玄法至極)’과 ‘선법지허(旋法至虛)’의 구별은 무엇입니까?

사부: 우리가 말한 현법지극(玄法至極)이란 하나의 개괄적인 용어이다. 이는 법을 전하는 초기의 이해문제이다. 이

훼손(銷毀) 내에 속한다. 학습반을 열 때 아마 이러한 사람이 들어왔을 텐데 이끌어 왔을 것이다. 당신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경우, 골절(骨折)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격한 규정을 내리지 않는다. 자원적인 방법을 취하므로 당신이 참아낼 수 있다면 되도록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정말 수련하고자 한다면, 정말 법의 위력을 느낀 사람이라면 모두 수련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이 공력을 들여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무방하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제자: 우주는 변두리가 있습니까?

사부: 우주는 변두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탐구하지 말라. 이 변두리는 너무나 크다. 여래 이 층차에서 가리킨 우주의 변두리는 모두 소우주의 변두리이다. 이 소우주는 인류는 물론, 여래 부처가 보아도 끝없이 넓어 탐측(探測)할 수 없는 것으로 그는 너무나도 방대하다.

제자: 『문예지창(文藝之窓)』 중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리홍썸(李洪志) 스승님께 길을 안내했다고 써어 있는데 정말입니까?

사부: 이는 『문예지창』이 문예작품의 각도에서 쓴 것이다. 그 수련생은 강의를 두 번 들었는데 이해가 깊지 못했다. 첫번 강의를 들을 때 그는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주 격동되

창춘(長春)

法輪大法(파룬파파)

보도원을 위한 설법

李洪志

1994년 9월 18일

그는 일반적으로 다 강경한 방법을 취했다. 제자의 다리를 묶어놓고 손을 몸 뒤로 묶어 스스로 풀지 못하도록 하는데, 눕는다 해도 풀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파서 까무러친다. 과거에는 이렇게 한 것이 있었다. 그때의 수련은 대단히 고생스러웠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이 한 문(門)은 직지인심(直指人心)으로 수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心性(썬썬) 제고를 지극히 중요하게 여기며 형체(形體) 상의 수련은 제2위로 여긴다. 당신은 될 수 있는 한 참고 견디어 당신이 다리를 트는 시간을 점차 늘리도록 하라. 하지만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석가모니 시대에는 계율(戒律)이 있었다. 석가모니가 세상에 있을 때는 경서가 없었고, 어떠한 문자도 남기지 않았다.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난 후, 후인(後人)들이 석가모니가 한 말, 그것을 정리하여 경서로 만들었다. 석가모니가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수련규정을 제정하여 계규(戒規)로 삼았는데 이는 문자로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법이 있기 때문에 계율이 없다. 수련하는지 안 하는지, 수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두 법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련함에 천편일률(千篇一律)로 규정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말겁(末劫) 시기에 이르러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되는 것으로서 도화(度化) 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했으나 아직 기(氣)를 연마하는 낮은 층차를 벗어나지 못했다. 기를 연마하는 최고형식에서 유백체(奶白體) 상태로 들어갔을 경우 이러한 체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짧은 과정이므로 당신은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 당신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역시 일종 집착심이므로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일체를 모두 필연으로 간주하고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르도록 하라. 이 층차를 지나가면 당신은 더는 체험하고 관찰할 수 없다. 공이 나온 후 당신의 신체는 공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이런 흑기, 병기는 당신의 신체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감각이 없다.

제자: 어떤 수련생은 心性(썬썬)이 끊임없이 제고되지만, 가부좌를 할 때 결가부좌를 하지 못해 억지로 무거운 물건으로 내리누르고 끈으로 묶는데 됩니까?

사부: 내가 알기로, 과거에 어떤 스님이 가부좌할 때 연자매·맷돌로 짓눌렀다. 하지만 연자매거나 맷돌이거나 모두 자원(自願)해서 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 짓누른 것이다. 그러나 도사(道士)는 안된다. 도가(道家)가 도제(徒弟)를 거느림에 단지 한두 사람을 거느릴 따름인데, 그중에 다만 한 사람에게만 진짜로 전한다. 도제에 대한 단속도 아주 엄해 특 하면 도제를 때렸다. 그는 제자가 감당해 낼 수 있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제자로 하여금 넘어가도록 한다. 그러므로

## 창춘(長春)法輪大法(파룬파파) 보도원을 위한 설법

李洪志

1994년 9월 18일

여기에 앉은 여러분은 모두 보도원과 골간(骨幹)으로서法輪大法(파룬파파)의 설립, 특히 창춘(長春)의法輪大法(파룬파파) 설립에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러 연공장의 수련생들이 매우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 보도원이나 골간은 일부 문제에 대해 해답하기 어려워하거나 해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한 가지는 법에 대한 이해가 투철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전수반(傳授班)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었기에 오로지 법을 투철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해답할 수 있다. 이것이 한 가지 원인이며 또한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는 수련생들이 제기한 일부 구체적인 문제들은 해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보도원이 직접 수련생과 접촉할 때 많은 구체적인 문제는 해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나는 줄곧 이런 한 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내가 법을 이미 보편적이고도 개괄적으로 말하였으므로 당신 자신의 수련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 법에 따라 하면 된다. 만약 무

엇이나 다 말해 준다면 당신 자신은 수련할 것이 없으므로 나는 더 많이 말할 수 없다. 더 말한다면 내가 당신을 끌어서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남은 것은 일부 실제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어떤 수련생들은 여전히 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는 나에게 묻지 못하므로 또 우리 보도원이나 연공 시간이 비교적 긴 노(老) 제자에게 묻고자 한다. 그러나 보도원이나 노 제자들도 자신이 직접 부딪쳐보지 못한 문제는 역시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함께 단체 연공을 하라고 하는가? 문제에 부딪혀 서로 연구 토론하고 공동으로 탐구하면 이러한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 자기 혼자서 연공하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알 수가 없어 매우 곤혹스럽지만, 연공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면 많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사실 한 문제를 파악함에 心性(썬쌩)에서 찾는다면 어떠한 문제든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또 일부 실제적인 문제는 보도원들도 해결하기가 확실히 아주 까다로우므로, 이런 문제들을 위해 내가 여러분에게 한 차례 모임을 갖게 한 것이다. 이 역시 창춘 보도원들의 남다른 소득으로서 다른 지역에는 아직 이런 기회가 없었다. 내가 이번에 돌아와서 많은 문제를 처리해야 함을 수련생들이 모두 알고 있기에 되도록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전화벨이 한 번 울려도 나를 몹시 교란할 수 있다고 여겨 많은 수련생은 전화조차 걸지 않는데, 나는 이 점을 알고 있다. 여러분을 소집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가 있는 공간 외에 동등한 층차 공간에 역시 사람의 신체가 있는 다른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의 사람은 우리 여기의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들은 명(名)과 이(利)가 없으며 단지 정(情)이 있다. 그러므로 그도 색신(色身)을 갖고 있다. 생김새는 우리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보다는 잘 생겼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신체는 날아다닐 수 있으므로 그들은 길을 걷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리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고 날아서 오가는데, 이런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는 동등한 층차 공간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공간에 관한 문제를 더 해석해 주겠다. 우리 지금의 과학자들은 전자가 원자를 에워싸고 돌고 있음을 연구해 발견하였는데, 그것의 운행은 우리 지구가 태양을 에워싸고 돌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는 지금 그 전자 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아낼 수 있는 이런 현미경이 없다. 만약 당신이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위에 생명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은 모두 우리 오늘날 물리학의 인식에 들어맞는다. 하지만 우리 현재의 과학수단은 아직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제자: 많은 수련생이 주위환경, 병기(病氣), 흑기(黑氣)에 모두 지극히 민감해하는데 이는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이런 유형의 수련생은 모두 공이 나오는 것에 근접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지금 고층차에서 법을 전하고 있는바, 사람들이 막 학습반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 어떤 일인지 모르다가 뜻밖에 고층차로 공을 전한다는 말을 듣는데, 우리의 설법을 통해 그는 점차 인식하게 된다. 당신은 그에게 이런 하나의 과정이 존재함을 용인해야 하는데 이는 확실하다. 그가 병을 치료하려는 마음, 난을 피하려는 마음,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왔든, 그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수련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설령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목적에 도달하고자 할지라도 그가 난을 피하려는 생각을 품고서는 역시 안 된다.

난(難)이란 사람 자신이 조성한 것으로 자신이 생생세세에 일부 좋지 못한 일을 해서 빚진 것이므로 갚아야 한다. 당신이 볼 때 당신이 수련과정 중에 겪는 고통, 그것은 모두 당신 자신이 조성한 업력이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좋은 일로서 우리가 당신의 心性(심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용하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부처로 수련될 수도 있고 또 마(魔)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이치이다. 업력이 존재하고 미혹 속에 있으므로 비로소 당신으로 하여금 수련할 수 있게 한다.

제자: 다른 공간의 많고 많은 저는 육신(肉身)의 층차 공간에 있습니까?

사부: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층차 공간에 있다.

함은 여러분에게 일부 문제를 해답해 주려는 데 있다. 총보도소에서 일부 수련생의 심득체험, 그리고 일부 귀납(歸納)한 문제도 보내왔지만 나는 미처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세 번째 책-『전법륜(轉法輪)』을 수정하고 있으며 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답함은 주로 여러분이 앞으로 일함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해야겠다. 이 자리에 앉은 보도원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동작을 보도(輔導)하는 것만 책임져서는 안 되며, 마땅히 법(法)을 투철히 이해하고 진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책을 많이 읽고 녹음을 많이 들어야 한다. 최저한도로 일반 수련생보다 많이 알아야만 비로소 진정하게 보도원을 잘할 수 있으므로 법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수련생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 최저한도로 일반적인 해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지도적 역할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대체적으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하게 고층차로 공을 전(傳)하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며, 바로 진정한 수련이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절에서나 혹은 심산(深山) 수림 속에서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것과 무슨 구별이 없다.

우리 이 법은 주로 속인사회 중에 열어놓았으며 대부분은 속인 중에서 수련한다. 그래서 우리는 속인 속에서 수련하는 수련인의 표현이 마땅히 속인과 기본적으로 일치할 것을 요

구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한 연공장의 책임자는 곧 절에서 수련하는 주지(住持)나 방장(方丈)과 같다. 나는 다만 비유를 했을 뿐이고 우리에게 관직을 주거나 요구조건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일종의 수련형식이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그것은 그래 마찬가지로 아닌가? 한 무리의 수련인을 잘 이끌면 공덕(功德)이 무량(無量)한 일이다. 잘 이끌지 못했다면 바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곧 이런 하나의 목적에서 여러분을 소집하였다. 총보도소의 책임자가 나에게 이런 문제를 말했다. 다시 한번 수련반을 열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에 이 법을 너무 명료(明瞭)하게 말해도 여러분의 수련에 불리하다. 그렇게 되면 속인 중의 이치가 되어버리기에 우리는 속인 속에서 어떠한가 수련하는 문제를 말할 필요가 없다. 잠시 후 나는 쪽지로 올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해답해 주겠다.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더 제출하라. 그 무슨 지식 탐구에 관한 것은 제출하지 말고, 국가 정책에 관련된 문제도 제출하지 말라. 우리가 수련과정 중에 부딪히는 비교적 전형적인 문제, 주로 이런 문제들을 해답하겠으니 여러분은 제출하라.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라고 통지한 것은 다만 보도원과 대법 일꾼들이다. 앞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절대 데리고 오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많이 오면 어떤 일들은 처리하기가 어렵다. 모두 보도원이기 때문에 본래 좀 높게, 좀 구체

모두 자신이 수련해야 하는 것으로서 당신에게 규정해 줄 사람이 없고 시간적 제한이 없다. 다른 사람은 나한(羅漢)과위로 수련해 올라감이 아주 빠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평생 수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신 자신의 감당 능력에 달렸으며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엄격한지 엄격하지 않은지에 달린 것으로, 이는 모두 자신의 문제이다.

제자: 저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 수련했지만 저희가 여전히 더 높은 데로 수련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내가 방금 말하였다. 석가모니는 이미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의 제자들은 여전히 위로 수련할 수 있었다. 설령 사부가 정말로 세상에 있지 않는다 해도 나의 법신이 여전히 있잖은가. 나 또한 정말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형신전멸(形神全滅)되는 것도 아니다.

제자: 일부 사람들은 난(難)을 피하고자 연공하는데, 그들의 결말은 어떠한가요?

사부: 그 어떤 구하려는 마음을 품고 연공한다면 모두 정과(正果)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법을 대하는 인식면에서, 사람에게에는 하나의 인식과정이 있음을 당신은 용인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연공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점차적인 인식과정을 거쳐서야 고층차의 것이

며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안 된다. 많은 사람은 천목이 열렸지만, 그는 늘 환각(幻覺)이라고 여기는데 이러면 안 된다. 열려서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라. 이는 상관없다. 집착과 체험은 별도의 일이다.

제자: 현재 삼화취정(三花聚頂)에 도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과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부: 현재 많은 사람이 이미 삼화취정을 초과하였다. 원만에 도달한 사람은 아직 없다. 모두 과위(果位) 중에서 수련하고 있으며 부동한 층차의 과위에서 수련하고 있다.

제자: 저희가 지금부터 각고(刻苦)의 노력으로 연공하고心性(썬썬)을 닦는다면 일년 반의 시간에 出世間法(추쓰젠파) 수련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사부: 시간적 제한이 없다. 수련하고 안 하고는 당신 개인의 문제이다. 얼마만 한 높이로 수련하고 인내력이 얼마나 크며 감당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 역시 당신 개인의 문제이다. 당신이 말해 보라. 사부가 당신에게 시간을 정해 놓고 수련하도록 한다면 당신의心性(썬썬)이 그 한 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心性(썬썬)이 승화되어 올라갈 수 있는가? 법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은 데로 도달할 수 있는가? 속인 중의 집착심을 당신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개인의 이익 앞에서, 남과 다투는 일에서 당신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적으로 말하여 앞으로 보도원 업무에 편리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수련생으로서 수련반에 한 번밖에 참가하지 못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직 수련반에 참가한 적도 없는데 단번에 이렇게 고심(高深)한 것을 들으면 받아들이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며, 또한 쉽게 그의 사상에 저촉(抵觸)하는 정서를 생기게 하여 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

보도원은 책임을 지고 신수련생들의 동작이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일부 노수련생들의 동작은 이미 괜찮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연공이 끝난 다음 알려 주라. 입정(入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연공 중일 때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신수련생은 반드시 도와주어야 하고, 일부 사람이 문의하면 인내심 있게 잘 해석해 주어야 한다. 우리 연공장의 모든 수련생은 중생을 널리 제도해야 하는 이런 책임이 있다. 무엇을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중생으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하게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와서 묻는데 당신이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되겠는가?

보도원의 연공은 반드시 전일(專一)해야 한다. 전일하게 연공하지 못하는 그런 수련생들에 대해 그에게 알려주고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확실하게 전일하지 않고 그가 그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에게 여기를 떠나 다른 공(功)을 연마(練)하라고 권고하여 우리 수련생을 교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그가 정말로 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는 연마(練)해도 얻지 못할 것인바, 이것은 오성(悟性)이 좋지 못해서다. 우리 불가(佛家)는 자비를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를 한번 혼내주겠다고 하는 그것은 안 되며, 심하게 정법(正法)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병을 봐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 연공장에 와서 병을 보게 하는데 이는 모두 대법을 파괴하는 짓이다. 이것은 하나의 매우 엄숙한 문제로서 누구도 이렇게 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곧 나의 제자가 아니다. 만약 보도원이 이렇게 했다면 즉시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이 두 가지 현상은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한다.

보도원은 일에 대해, 되도록 책임을 져야 하며 번거로운 일이라도 주동적으로 해야 한다. 어떤 보도원은 아마 나이가 많아서 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자신의 감각은 좋지만, 설명이 분명치 않다면 조수(助手)를 찾아서 보도원 일을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 당신 개인의 득실(得失)에 따를 것이 아니다. 당신 개인의 득실이라 하더라도 법과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보도사업을 함에 개인적인 각종 염두를 섞어 넣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개인과 단체 수련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도원의 동작은 되도록 정확해야 하며 되도록 비디오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아야 하는바, 대체로 같아야 한다. 사소한

사람들이 수련해 낼 수 있고, 장래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도를 얻을지 나는 아직 낙관적이 못하는데, 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수련하는지에 달렸다. 어찌 이 사천여 명이 단번에 성불(成佛)하고 사천여 명이 모두 점오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연공장에서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煉)하는 사람 중 얼마나 되는 사람이 점오 상태에 들어갔는가? 진정으로 실속 있게 수련(實修)했는가? 진입하는 점오 상태가 같지 않은데, 당신이 점오 상태에 들어간다 해서 곧바로神通(神通)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나는 말한 김에 한 가지 더 말하겠다. 우리 많은 사람이 이미 점오(漸悟) 상태에 들어갔지만, 그는 늘 두려워한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지금 인류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집착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방면을 나는 더욱 강조하는데, 공능이 나와도 상관하지 말고 천목이 열려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의 천목이 정말로 열렸고 또 아무런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이 봐도 상관없다. 당신의神通이 나왔다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좀 운용(運用)해도 문제가 없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는데, 그것을 집착심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 자신의 법이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법을 좀 운용하는 이것은 집착심과는 별개의 일이다. 지금 어떤 사람은 이미 점오(漸悟) 상태에 들어갔지만, 그 자신이 두려워하고 늘 정색하

다시피 석가모니가 세상에 있지 않은 지 이미 이천여 년이 지났지만, 말법(末法)시기 이전에 아주 많은 승려가 수련해 나왔으며 어떤 사람은 수련한 층차가 아주 높았다. 당신이 반드시 사부 앞에서 친히 전수를 받아야만 수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 이 공간에 있는 제가 수련하여 法輪世界(파룬쓰제)에 가면 다른 공간에 있는 수많은 저도 수련하여 法輪世界(파룬쓰제)에 갈 수 있습니까?

사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 그들이 수련을 잘하여 당신과 전체적으로 일체(一體)가 된다면 당신의 호법(護法)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좌우한다. 그를 호법이라 할 수 있는데 副元神(푸웬션)과 큰 차이가 없다. 만약 그가 잘 수련하지 못했다면 그는 안 되는 것으로 그 역시 독립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수련했으면 오로지 당신이 얻는 것으로, 수련하는 자가 얻는다.

제자: 法輪大法(파룬따파)는 점오(漸悟)하는 것인데 저희는 언제 점오 상태에 들어갑니까?

사부: 우리 많은 수련생이 이미 점오 상태에 들어갔다. 많은 수련생이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소리소문없이 괜찮게 수련했다. 내가 하얼빈(哈爾濱)에서 수련반을 열 때 말했다. 지금 사천여 명의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지만 얼마나 되는

차이마저 없게 하기는 어렵다. 절대적으로 일치하여 모두 하나의 목판으로 찍어낸 것처럼 같아야 한다면,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일치하면 되지만, 단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된다. 특히 보도원인 당신이 그런 상태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곧 빗나가게 된다.

다음으로 문제해답을 시작하겠다.

제자: 형신구멸(形神俱滅)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부: 형신구멸(形神俱滅)은 하나의 오랜 용어로서 우리는 그것을 형신전멸(形神全滅)이라고 한다. 구(俱) 자의 발음이 좋지 않다. 멸(滅)은 곧 흩어져버린다는 것인데, 구(俱)와 취(聚)는 음이 같고, 취(聚)는 곧 그에게 합한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앞으로 형신전멸(形神全滅)이라고 부른다. 물론 책에는 여전히 형신구멸이라고 써어있기도 하다. 이 책은 아직도 과도기의 도서에 속한다. 우리가 첫 번째 책, 『파룬궁』을 써냈을 때는 저층차의 기공과 일부 방면에서 아주 유사했다. 두 번째 책 『파룬궁』(수정본)은 기공보다 훨씬 높아졌다. 나는 지금 내가 강의한 전체 법을 정리하고 있다. 장차 써내면 곧 우리를 지도하는 진정한 수련대법으로 될 것이다. 새 책에서는 많은 어휘가 다 바로잡힐 것이다.

형(形)이란 곧 유형(有形)의 신체(身體)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공간의 신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각 공간에는 모두 당신의 신체가 존

재하는데, 모두 유형적이며 모두 물질 존재이다. 줄곧 극히 미시적인 데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체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으면, 곧 사람은 그만큼 많은 신체가 있다. 형신전멸이란 곧 이런 신체들이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신(神)이란 곧 사람의 元神(웬션)을 가리킨다. 主元神(주웬션)이거나, 副元神(푸웬션)이거나, 각종 생명체를 막론하고, 형신전멸 할 때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다! 전체 우주 중에서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바, 전멸해 아무것도 없다. 물론 무한히 미시적인 물질은 여전히 존재한다. 나는 진공(眞空) 역시 물질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 현대 물리학의 연구는 겨우 중성미자 이 층차에 도달했을 뿐인바, 그 최소의 물질은 중성미자이다. 이는 물질의 근원인 본원 물질(本源物質), 최소의 생명인 본원 물질과는 아직 그 거리가 상당히 멀고 상당히 멀다. 극(極) 미시하의 물질이 隗멸(銷毀)되어 가장 원시의 상태로 될 때 우리는 형신전멸 한다고 말한다. 다시 가장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물질은 곧 존재하지 않으며, 아주 높은 층차에 있는 대각자(大覺者)마저도 볼 수 없다. 또한 사유(思維)가 없고 완전히 흩어진 가장 미시적인 형식인데, 과거에는 고층차에서 대법(大法)을 위반했을 때만 이렇게 처리하였다. 인류의 隗멸 역시 이런 것으로, 그가 이미 가장 낮은 층차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곧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순간, 심지어 당신이 속인 중에서 법력을 체득하지도 못했는데, 당신을 데려간다. 왜냐하면, 그의 속인에 대한 교란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 모두 이러하다. 나는 늘 말했다. 어떤 도사(老道)는 심산 속에서 다년간 수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재주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들의 재간이 아주 작으므로 그들이 세간(世間)에서 신통을 열어놓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 그들도 속인 사회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도 끝장이게 마련이다.

제자: 학습반에 참가하지 않아도 法輪(파룬)을 수련해 낼 수 있습니까?

사부: 이 문제를 나는 여러 차례 말했는데, 책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당신이 진정하게 대법에 따라 수련한다면 당신이 가장 외진 곳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문제가 없다. 나의 책 속에는 나의 법신(法身)이 있고, 매 하나의 글자는 얇은 층차에서 보아도 모두 法輪(파룬)만큼 큰 것으로서, 당신이 의념(意念)을 굴리기만 해도 그는 무엇이나 다 안다. 진정하게 수련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혼자서 책을 보고 연마(煉)하거나 연공장에서 노수련생과 함께 연마(煉)해도 다 된다. 오로지 당신이 진정하게 수련하기만 하면 모두 얻을 수 있다. 다들 알



금 속인사회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가? 왜 그로 하여금 이 공간을 뚫고 나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가? 바로 그의 위력이 실로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설령 그가 다른 공간에서 작용한다하더라도 당신을 돌봐주기에는 족하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자:法輪(파룬)이 우주의 축소판이라면法輪世界(파룬쓰제)는 우주와 마찬가지로 큼니까?

사부: 아니다.法輪世界(파룬쓰제)는 우리 이 우주에 있는 아주 높은 층차상의 한 단위(單元) 세계이다. 우주는 매우 방대한 것이다. 일부는 신수련생이기 때문에 어떤 말은 내가 하기 어려운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 방대한 우주 중에는 무수한 소우주(小宇宙)가 있다. 인류는 하나의 소우주 속에 존재한다. 이런 소우주 중에는 무수한 은하계가 있다. 여래 층차의 부처는 소우주를 봄에 있어 변두리를 보아내지 못한다. 대우주(大宇宙)가 얼마나 큰지를 과거에는 인류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방대하다. 사람은 수련과정 중에서 신체가 밖을 향해 확장될 수 있다. 즉 신체의 용량이 증대(增大)되는데 신체의 용량이 점차 크게 변하고 마음도 크게 변하며, 사상이 승화되고, 층차가 제고된다. 그러나 속인 이쪽의 신체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속인과 마찬가지로 있다가 오직 원만에 도달할 때에야 그는 비로소 합쳐진다. 그리하여 합하는

다시 말해서 우주 중에서 철저히 그를 제거해 버리는데, 사유가 없고, 거의 물질이라고는 없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원시적인 상태로 휘멸된다.

제자: 남불(男佛), 여불(女佛)의 성별은 수련인(修煉人) 육신의 성별입니까, 아니면 主元神(주웬션)의 성별입니까?

사부: 사람이 수련하여 出世間法(추쓰젠파) 수련에 이르면 이미 나한과위(羅漢果位) 수련에 진입한 것으로서 곧 초과나한(初果羅漢)이다. 그러면 부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당신은 이미 불체수련(佛體修煉)을 하는 것이다. 나한은 초과나한(初果羅漢), 정과나한(正果羅漢)과 대나한(大羅漢)으로 나눈다. 매 층차의 거리는 모두 아주 크다. 대보살은 가히 불타(佛陀)라고 말할 수 있다. 나한과위에 도달하여 수련할 때 개오(開悟)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남자 몸(男身像)으로 나타난다. 당신은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에 당신 육신의 성별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의 육신이 잠시는 남자로 잠시는 여자로 된다면 무슨 모양이겠는가! 과거에 어떤 사람은 수련하여 나한과위에 도달해 원만(圓滿)에 이르렀다. 원만은 또 정지에 도달했다는 것과는 같지 않다. 만약 사람이 단지 나한과위로 수련하여 원만하고 그가 더는 높은 데로 수련하여 올라가지 못한다면 정(定)해지기 시작한다. 그가 일단 개공(開功)한 다음에는 원래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모두 남자 몸으로 나타난다. 그의 신체는 그가 수련해

낸 불체(佛體)이기 때문에 나한과위에서는 모두 남체(男體)로 나타난다.

진정한 元神(웬선)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그의 그 신체가 고에너지물질로 전화(轉化)된 것이든, 그가 수련해 낸 그 금강불괴지체(金剛不壞之體)이든, 열반(涅槃)할 때 부처가 그에게 준 그 불체이든, 나한과위에서는 모두 남자 몸(男身像)으로 나타난다. 보살 경지에 도달하면 모두 여자 몸(女身像)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元神(웬선)의 성별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는 여전히 신체(身體)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신체는 고에너지물질로 구성된 것일 뿐이다. 더 높아도 신체를 갖고 있는데 바로 부동한 공간의 신체[불체(佛體)]다. 부처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성별은 主元神(주웬선)의 성별로 회복되어 남자 부처(男佛)는 곧 남자 부처이고, 여자 부처(女佛)는 곧 여자 부처이다.

제자: 本體(번티)와 불체(佛體)를 수련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本體(번티)는 저층차 수련 중의 한 개괄적인 용어로서 당신의 각개 공간의 신체를 가리키는데 당신의 육체도 포함한다.

제자: 정법(正法)을 얻고 정과(正果)를 이루면 원만(圓

의 이 면을 나는 모두 도형으로 그려냈지만, 그는 또 법의 일면도 있다. 공의 일면은 바로 도형과 같은 이런 형식이다. 우리 수련생들은 수련하여 장래 정과를 얻어 과위(果位)가 있게 되면 스스로法輪(파룬)을 수련해 낼 수 있는바, 단지 하나만 수련해 낼 수 있다. 당신이 아주 높은 층차에 도달해도法輪(파룬)은 단지 하나일 뿐으로, 그것은 당신 자신의 체현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준, 아랫배 부위에 있는 그法輪(파룬)을 대체하는데,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과실(果實)이다. 그러나法輪(파룬) 또한 법의 체현으로서 그는 분체(分體)할 수 있다. 당신이 신통(神通)을 조금 쓰면 그는 분체(分體)될 수 있다. 당신 역시 얼마간의法輪(파룬)을 내보낼 수 있지만 내가 오늘날 수련해 낸 그런 형식의 그렇게 많은 독립체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法輪(파룬)은 그렇게 크고 진귀한 것으로서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창조해 낸 것이다. 당신이 한 수련과정을 거쳐 내가 수련한 바의 이렇게 큰 것을 수련해 내기는 불가능하며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하나의法輪(파룬)을 수련해 낼 수 있다는 이 점은 틀림없다. 이法輪(파룬)의 위력은 대단히 크다. 정말 이 공간으로 가져와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며 아주 굉장한 것이다. 당신이 장래에 수련해 낼 그法輪(파룬)이 이 공간에서 돈다면, 내가 보견대 거대한 회오리 바람(龍捲風)이 휘몰아칠 것이다. 그의 위력은 대단히 크다. 왜 그로 하여

행성(行星)은 항성(恒星)을 둘러싸고 돌고, 전자는 원자핵을 둘러싸고 돈다. 모두 선기(旋機)가 존재하지만, 내포는 천양지차다. 아마 두 가지 같은 것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극히 적고 적다.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겠는데, 대각자들이 오늘의 일을 배치하였다면 우주 연화(演化) 과정 중의 일체 일은 모두 이 일을 위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우주 형성의 초기에 이미 최후의 대사(大事)를 위해 배치하였다면 많은 일이 확실히 모두 오늘날 말갹시기에 최후의 한 차례 정법을 전하기 위한 배치일 것이다. 왜 본 세기(本世紀) 이 연대에 역사상 여태껏 없었던 기공 열조가 나타났는가.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왜 각종 각양의 공법이 나타나는가. 이것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는 속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제자: 法輪(파룬)과 法輪世界(파룬쓰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부: 法輪世界(파룬쓰제)는 法輪世界(파룬쓰제)의 여래가 주재하는 대단히 방대하고 미묘(美妙)한 세계이다. 法輪(파룬)은 법(法)이 체현한 공(功)의 일면이기도 하고, 또 법 일면의 체현이기도 하다. 법의 한 면의 체현으로는 내가 강의한 법(法) 이외에 더욱 높은 법과 형태가 있지만 우리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또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

滿)으로 여기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수련해야만 비로소 원만한 것입니까?

사부: 원만과 우리 과위(果位)의 높고 낮음은 별도의 일이다. 당신이 나한과위까지 수련하면 당신은 이미 불체수련이다. 과거에는 오로지 여래(如來)만 부처라고 하였다. 지금은 부처가 비교적 많다. 구별하자면 여래 역시 일부 부처를 관할하는데 그런 일부 부처는 여래의 층차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보살을 초과하면 곧 부처라고 부른다. 대보살 또한 부처라고 부르며 심지어 나한과 보살까지도 부처라 불러 준다. 왜냐하면, 모두 불가(佛家)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나한과위로 수련되었으면 곧 불체수련 중에 있는바, 바로 이런 뜻이다. 그러나 비록 당신이 불체 상태에서 수련하고 있지만, 당신이 꼭 원만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의 근기(根基)는 같지 않으며 감당능력 역시 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보살과위로 수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처과위로 수련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더욱 높이 수련하여 여래의 과위를 능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만 나한과위로 수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느 층차에 도달하든지 모두 이미 삼계(三界)를 벗어났고 모두 과위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이미 정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만했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당신에게 보살과위(菩薩果位)에서 개오(開悟)하고 원만으로 수련성취 하계끔 배치하였다면, 설령 당신이 나한과

위에 도달하였다 해도 당신이 아직 수련하는 최종목적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만했다고는 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층의 관계이다. 당신이 대가를 얼마나 치르고 수련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한 만큼 얻게 마련이다. 당신이 비록 원만으로 수련되지 않았지만, 당신은 이미 과위를 얻었다. 그러나 어쨌든 아직 원만으로 수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층차문제가 존재하는바, 아직 수련의 최종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제자: 반본귀진(返本歸眞)은 정과를 얻는 것과 어떤 관계입니까? 본(本)과 진(眞)의 함의는 무엇입니까?

사부: 반본귀진(返本歸眞)과 속인들이 말하는 반박귀진(返樸歸眞)은 별도의 일이다. 우리가 말하는 반본귀진은 곧 당신의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당신의 본성, 당신의 본질, 당신의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당신이 속인사회 속으로 떨어져 옴으로써 이미 당신의 본래 면목은 덮어 감춰져 버렸다. 속인사회 중에서는 흑백이 전도(顛倒)되고 시비(是非)가 전도되니 당신은 되돌아가야 한다. 귀진(歸眞)이란 도가의 용어이다. 우리가 수련하는 이것은 아주 커 이미 불가 자신의 범위를 벗어났는바, 일부는 도가의 설이다. 도가에서 수련성취 하면 바로 진인(眞人)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로 수련된 것인데 그들을 진인, 진정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제자: 저는 영원히 수련하고자 발원(發願)하는데 스승님께서 저희에게 배치하신 길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부: 당신이 영원히 수련하겠다고 발원하는데 이 영원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정과를 얻지 않고 원만하지 않으며 늘 수련한다고? 수련에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수련해서 고층차에 이르는 것은, 당신 자신이 발한 소원과 실제로 얼마나 높이 수련할 수 있는지에 근거하여 사부가 비로소 당신에게 배치하는 것인데, 모두 매우 과학적이다. 당신은 본래 한 덩이 강철(鋼)인데 당신을 철(鐵)로 배치한다면 그건 안 된다. 당신이 보살과위로 수련할 수 있는데 당신을 나한과위에 배치한다면 이 역시 안 된다. 매우 정확하게 보는 것으로 그곳에서는 조금도 잘못 보지 않는다.

제자: 우주 중에는 완전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부: 어느 수련방법이든 한 대불(大佛)이 한 법문(法門)을 주재하는 것은 같다. 그러나 수련하는 방식은 같지 않다. 오늘 우리의 이法輪(파륜)과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또 일부 회전(旋轉)하는 것이 있는데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잖은가. 밀종(密宗)에서는 의념(意念)으로 일종의 바퀴를 밀어 돌리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것이 또 있는데 창춘(長春)의 모모(某某) 기공사 또한 태극 회전(太極旋轉)을 연마하지만 우리 이것과는 같지 않다. 그의 그것은 안으로 거둬들일 뿐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것과 같지 않다.